

보도해명자료 (‘14. 7. 9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‘맞춤형 웰니스’선 공조까지 균열 (‘14.7.9, 전자신문)

1. 기사내용

- 미래성장동력 ‘맞춤형 웰니스 케어’사업은 산업부와 미래부의 공동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, 산업부 단독 추진으로 갈등 표출
 - 산업부는 ‘맞춤형 웰니스’사업과 유사한 헬스케어 관련 사업의 세부계획을 준비 중으로 이는 산업 정책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있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미래성장동력 ‘맞춤형 웰니스 케어’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산업부와 미래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님
 - 산업부와 미래부는 ‘맞춤형 웰니스 케어’ 사업을 위해 공동추진단*을 구성·운영 중이며, 각 부처에서 추진할 세부과제도 상호 협의 하에 추진 중

* 미래부 추천위원 12명, 산업부 추천위원 11명으로 구성(‘14.4)

- 이에 따라 산업부에서 추진하는 ‘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’ 사업*을 공동추진단을 중심으로 기획하고 있으며,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 미래부와 협의 중

* ‘맞춤형 웰니스 케어’ 실행계획 1단계 추진전략의 ‘웰니스 서비스 기반 마련을 위한 인프라 구축’ 추진과제 중 ‘개인-병원 간 개인건강기록 확용을 위한 개방형

개인건강 빅데이터 공유·보안기술’ 내용에 기반

- 미래성장동력 ‘맞춤형 웰니스 케어’는 산업부 단독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며, 미래부, 복지부와 협력할 계획임

※ 관련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

팀 장 김성수 (044-203-4391)

사무관 조우정 (044-203-4395)

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

과 장 오상진 (02-2110-2840)

사무관 김새별 (02-2110-2841)

※ 미래창조과학부(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)와 공동으로 배포하는 해명자료임

